

정기국회 벌써 보름 허비... 기약없는 국회 정상화

새정치 내홍에 정국 썩음

여야 대화 자체 불가

정의화 의장 “한계에 왔다”

세월호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얼어붙은 정국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벌써 보름이 지났지만 탈출구를 찾으려는 노력조차 할 수 없이 정국 표류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굽지 않은 눈빛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해 여야 지도부와의 연석회의 개최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내홍 속에 결국 불발했다.

새정치연합은 임시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으로 번졌다가 이날은 아예 박 원내대표의 탈당설로까지 비화하면서 여당과의 대화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여야 협상의 한 축인 박 원내대표가 사퇴하거나 탈당할 경우 개점휴업 상태인 정기국회가 계속 공전하는 것은 물론 여야 간 정치적 상호 작용도 실종될 가능성이 커 정국은 항배를 증잡할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악재 때문에 이날 국회 본회의 소집은 우려했던 대로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단독 국회’ 카드까지도 검토했지만, 야당의 존재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홀로 국회’를 강행하지는 않았다.

다만, 일단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16일 열리는 운영위 전체회의에 야당 의원들이 불참해도 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이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10시에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야당이 참여하든, 안 하든 국회 의사일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당 내 중도 소장파 모임 의원들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 온건파와의 대화 채널을 모색하고 나섰다. 이 역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 원내 입성한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정상화 노력을 정의화 국회의장과 야당 측에 압박했다.

정의화 의원은 이날 현재와 같은 교착 국면이 계속되면 여당과 함께 국회 의사일정을 강행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새누리당도 원내 다수당이긴 하지만 16일 단독으로 의사일정을 확정하기보다는 며칠 더 시일을 두고 야당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조금 더 많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모든 공기업 등

전방위 규제개혁

與, 특별법 제정 추진

새누리당이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에 전방위로 적용되는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방만 경영으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공기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경영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별도의 감시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16일 규제개혁분과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차례대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공기업·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제정안에는 규제 개혁 방안의 적용대상을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규제개혁이 계속성,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비상설 기관 형태인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장관급 상설기구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부처의 일상화된 ‘행정지도’가 규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지도도 규제로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현행법상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일지라도 책임을 면해주는 공무원 면책 조항 및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최고위원회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이 15일 오전 인천 서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시설물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與 보수혁신특위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내정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장에 김문수(사진) 전 경기지사가 내정됐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김문수 대표가 김 전 지사를 보수혁신 특별위원장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김 전 지사는 두 차례 도지사 경험과 3선의 국회의원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김 전 지사가 평생 살아오며 보여준 개혁에 대한 진정성과 성실함을 높이 산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김 전 지사가 새누리당의 혁신안을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나머지 특위 위원들도 이번 주 내로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생 법안 하나도 통과 못시키는데...이돈을 쓸 수가 없다”

이정현, 추석 상여금 387만원 반납키로



지난 7·30 재보선에서 파란의 승리를 거둔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15일 여야 의원 전원에게 각각 지급된 추석 상여금 387만8400원을 반납하기로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상여금이 든 흰 봉투를 들어 보이면서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고 이 돈을 쓸 수가 없다. 오늘 국회의장실에 이 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석 연휴 기간 가장 많이 들었던 비난 중 하나가 추석 보너스였다”면서 “380만원 받고 배부르다. 그렇게 일도 안 하면서, 국회에서 민생에 필요한 법안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보너스 쟁기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당당하고 떳떳하냐는 질책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이 추석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함에 따라 다른

여야 의원들 중에서도 추가로 상여금 반납 사례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이 최고위원은 또 지난해 새정치연합 소속 실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과 관련, “단순하게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 아니라 상당히 의도되고 기획되고, 모든 것을 다 떠나 여성에 대한 비하의 의미도 분명하게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설 의원께서 자신의 어머니, 부인, 그리고 딸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품위 있고 신중한 발언을 했어야 한다”면서 “교문위원장인 이분의 발언이 저질 문화를, 저질 교육 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설 위원장은 교문위원장 자리를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김무성 “국회 선진화법 개정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5일 ‘국회 선진화법’이 식물 국회의 원인이 되는 ‘국회 후진화법’이라며 개정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50여일간 반복된 국회 파행으로 시급한 민생법안을 상정하지 못해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국회해산 요구까지 나오는 현상을 정치권이 정말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깨고 국회의 손발을 꽂공 묶을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지금 현실로 나타났다”며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실상 정책 실행을 방해, 식물 국회·식물 행정부를 만들으로써 국회 퇴행을 부추기는 문제투성이의 ‘국회후진화법’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예쁜사람은 많다
돈 많은 사람도 많다
정신이 맑고 마음이 예쁜사람도 많았으면 좋겠다.
나눔과 배려가 세상을 바꾸듯이
신협이 예금과 대출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비과세 예금 3,000만원 (1인당 예금보장 5,000만원)
- 대출최고한도 28억원 (최저금리 3.8%)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금호지점/중앙지점

하반기 부동산 대전망과 실천투자 전략세미나

99% 적중률 최고의 부동산 실전문가 김영표 대표가 말하는 소액으로 썩저렴 솟아나는 월세나오는 부동산을 찾아서...
종자돈 3천~1억으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장 소	NC백화점(구.현대) (10층 문화센터)
일 시	2014. 9. 17. (수) 2시 / 7시 선택
문의전화	062)383-1330 (사전 예약)

강/의/내/용

- ① 하반기 및 2015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공개
- ② 광주·전남지역 부동산 흐름 및 주택시장 투자 전략 공개
- ③ 토지 대전망·토지 가치변화에 따른 개발지역 투자 포인트 해법공개
- ④ 3천~1억 소액투자자 월세 받을수 있는 투자지역 매물 추천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 검색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